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

임 현 희¹⁾

조 한 익²⁾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3학년 608명으로 남학생은 327명이고 여학생은 281명이다. 측정도구는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척도이다. 연구결과 부모의 일반진로기대는 자아분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성진로기대는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적성진로기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아분화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반진로기대는 자아분화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1)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2) 교신저자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E-mail: h1652@gnu.ac.kr)

I. 서론

청소년기는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하다가 서서히 독립해 나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부모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며 이러한 기대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관련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자신의 진로정체감과 관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진로정체감 형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내적인 영역과 외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진로발달, 진로탐색 및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것으로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적인 틀이 된다(유정이, 2006; Super, Starishevshky, Matlin, & Jordan, 1963). 김성경(201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설계하고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본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청소년들의 동기, 흥미, 적성 등을 미래 직업과 연계하여 진로에 대한 자신의 관심분야를 알고 잠정적으로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다(이희선, 선우현정, 2015; Meijers, 1998). 그동안 진로정체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지만(박형서, 공인규, 2010; 서유란, 이상희, 2012; 임경용, 2016) 김성경(2015)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중학교 시기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학교 때는 자율성이 발달하고 진로발달이 촉진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는지, 그리고 진로정체감은 어떠한지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이희선, 선우현정, 2015; 조세연, 김기찬, 2014). 진로정체감은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런 발달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형성되는 진로정체감 연구는 이후 자신의 전공선택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정체감 연구는 진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유지하며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높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이 탐색한 일의 세계와 자신을 보다 잘 연결할 수 있다(김사라형선, 2013; Holland, 1997). 청소년들의 진로고민은 자신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해 나가고, 직업세계와 연결하여 합리적으로 직업을 계획하고, 선택한 직업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 진로교육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문가연, 2004; Guan et al., 2016).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부모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김관석, 2001; 노진숙, 1999; 신순란, 1999; 이상인, 2001; 조은주, 2001; Guan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과 관련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개인 외적인 부모의 특성과 개인 내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사람이 태어나 최초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이 매우 크다. 부모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이며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심호규, 2007). 부모는 전 생애에 걸쳐 자녀의 다양한 발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자녀의 진로발달 및 결정에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헌신적이며, 자녀의 높은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심호규, 2007; 안기준, 2001; 정영자, 1978; 한수연, 2006).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직업선택 등에 대해 갖게 되는 부모의 진로기대란 신체, 인지 및 사회발달 영역에서 자녀가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행동, 성취, 능력에 대해 부모가 갖는 주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말한다(이문준, 2012; 이창숙, 2011; 한수연, 2006).

부모의 진로기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살펴 보아야 할 사항은 부모의 진로기대가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모의 진로기대는 Pinquart, Juang과 Silbereisen(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녀의 진로선택에서 부모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일반진로기대, 가업진로기대, 경제진로기

대, 자녀의 진로희망이 중시되는 적성진로기대로 심호규(2007)가 개발한 척도이다. 또 다른 척도로는 신동우와 유계숙(2012)이 개발한 부모의 진로기대로 성공지향, 가족부양, 대리만족 등의 부모중심의 진로기대와 자녀행복의 자녀중심 진로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척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부모의 진로기대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진로기대에는 부모지향적인 진로기대와 자녀지향적인 진로기대가 섞여있고 각각의 진로기대가 경제, 가업, 성공, 부양 등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진로기대 요인들을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 요인들이 각기 다른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어 요인들 각각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부모의 진로기대는 자녀의 성장기에 성격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한수연, 2006; Guan et al., 2016). 부모의 진로기대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의 진로와 관련된 적성, 능력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녀들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고려보다는 성적과 부모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로를 선택한다는 연구를 보면 알 수 있다(심호규, 2007). 부모는 자녀를 위해 진로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는 자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

히려 그것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진로 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차병주, 2011). Leung, Hou, Gati와 Li(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직업 관련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진로기대는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정적 미래 직업을 고민해야 하는 중학교 시기에 부모의 진로기대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정체감이 어떠한가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중학교 때에 부모의 진로기대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해 가고 있는지를, 이에 따라서 진로정체감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그동안 부모의 진로기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긍정적인 연구들과 부정적인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를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연구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요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진로기대와 진로정체감에서 혼재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생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청소년의 발달 과정 중 하나인 자아분화는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신의 자율성을 찾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진로태도가 발달한다고 한다(박수현, 2009). 여

기에서 자아분화란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애착과 결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율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김은재, 2016; Bowen, 1982). 자아분화는 이러한 자율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각과 통제력을 갖추고 주변 환경에 건강하게 기능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 주며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발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최연우, 2010). 자아분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자아분화가 높을 때 자율성을 발달시키고 진로결정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다(최소영, 2013; Kerr & Bowen, 1988; Rainey & Borders, 1997; Rogers, Creed, & Glendon, 2008; Skowron & Friedlander, 1998).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가 형성되고 자기이해와 흥미에 대한 탐색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Bowen, 1976). 이러한 연구들에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흥미와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의 특성인 부모의 진로기대와 청소년 자신의 특성인 자아분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연구에서 자아분화가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동우, 유계숙, 2012). 심혜숙과 곽미용(2003)은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낮아지고 부모의 기대대로 자신의 성격을 지각하지만 부모의 기대가 낮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

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이 높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아분화는 높아진다는 연구(김지원, 이정윤, 2014; Papero, 1990),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아분화가 낮아진다는 연구들(제석봉, 1989; 최소영, 2013;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을 볼 때 부모의 진로기대는 자녀의 자아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학생의 또 다른 개인적 특성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임경용, 2016; Greenhaus & Sklarew,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진로탐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진로기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진로기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예지, 2015; 차병주, 2011). 강지혜(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진로기대 중 일반 진로기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성진로기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진로기대를 자녀에게 투영하는 경우 자녀가 올바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적성에 맞는 진로에 대해서 지지해주

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신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분화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독립해 나가면서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아분화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병화, 2008; Hoffman, 1984).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규, 2006; Guan et al., 2016). 하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진로기대와 자아분화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부모의 진로기대가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기대하는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이문죽, 2012; 이정규, 2006; Alliman-Brissett, Turner, & Skovholt, 2004) 부모의 진로기대를 자녀가 따르도록 하는 일반진로기대, 경제진로기대, 가업진로기대는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혜, 2017; 신동우, 2012; Leung et al., 2011). 부모의 진로기대는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지지적인 진로기대는 청소년의 자아분화를 촉진시키지만 부모의 성취압

력과 관련한 진로기대는 자아분화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원, 이정운, 2014; 신동우, 유계숙, 2012; 신소홍, 2014). 청소년들의 자아분화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재, 2016; 전병화, 2008) 청소년들의 자아분화가 높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생활방식과 더불어 자신과 진로에 대한 정체감 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정택, 심혜숙, 1992; 남상인, 2003; Skowron & Friedlander, 199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진로정체감은 낮아진다고 한다(김화영, 2003; 김혜경, 2012; 문미란, 2003; 배무련, 2015; 이연미, 2001; 최영희, 2004; Harren, 1979).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부모가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한 진로를 지지할 경우 부모의 진로기대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촉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자녀에게 강요할 경우 부모의 진로기대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자기효능감은 완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에서 남녀 간에 성차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정아(2005)의 연구에서 부모의 진로기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혔으며 남희경(2012)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진로기대를 더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에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방미, 2015). 허형원(2011)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목표설정 및 문제해결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간에도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선, 2009). 또한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아라, 2013; 최동민, 2015).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인의 흥미, 적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재 자신의 능력 및 상황에 맞추어 미래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확신수준이 높게 작용한다는 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풍토상 남성이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경제적 책임이 더 많았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독립된 경제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중학생의 부모의 진로기대와 자아분화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진로기대와 진로정체감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파악하고 진로와 관련된 교육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목적과 관련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성별에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지역 3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단기적으로는 학업과 진로 등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해 나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설문은 615부를 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 6부를 제외하고 남학생은 327명, 여학생은 281명 전체 608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부모의 진로기대

부모의 진로기대는 심호규(200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진로기대는 자녀가 부모의 진로기대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며 진로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부모의 진로결정이다. 일반진로기대는 총 5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부모님이 세워놓으신 진로계획대로 실천하고자 한다’ 이다. 일반진로기대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일차원성의 가정을 만족한 척도이기 때문에(심호규, 2007; 정혜연, 2009) 측정변수들을 무선적으로 2개의 하위요인으로 문항묶음을 하였다. 문항묶음에서 문항들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총점이 아닌 평균을 사용하였다. 일반진로기대의 문항묶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른 척도들과 균형을 맞추어 하위요인으로 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고 추정해야 할 계수들을 줄여 안정적인 추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김수영, 2016; Kline, 2011). 본 연구에서 일반진로기대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일반진로기대는 .86으로 나타났다.

적성진로기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희망을 진로결정의 최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적, 적성, 흥미, 성격 등을 고려하고 자녀의 진로희망을 도와주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적성진로기대는 총 5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나의 부모님은 나의 진로를 위해서는 무엇이

든지 아끼지 않고 지원하신다' 이다. 적성진로 기대도 2개의 하위요인으로 문항묶음을 하였으며 문항묶음의 방법은 앞부분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적성진로기대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적성진로기대는 .82로 나타났다.

가업진로기대는 전통적인 집안의 가업이나 가계 또는 기술을 자녀가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진로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가업의 계승이다. 가업진로기대는 총 4문항이고 문항의 예로는 '나의 부모님은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다. 가업진로 기대도 2개의 하위요인으로 문항묶음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업진로기대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가업진로기대는 .74로 나타났다.

경제진로기대는 자녀의 진로성취 목표가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나 경제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진로기대이다. 경제진로기대는 총 4문항이며 '나의 부모님은 되도록 경제적 성공이 가능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다. 경제진로기대도 2개의 하위요인으로 문항묶음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제진로기대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형태의 척도이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경제진로기대는 .76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Bowen의 이론적 개념 중 다섯 가지의 구성 개념을 추출하여 타당화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 수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대 정서 7문항, 자아통합 6문항, 가족투사 6문항, 정서적 단절 6문항, 가족퇴행 11문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대 정서 문항의 예로는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 이고 자아통합 문항의 예로는 '나는 대다수 사람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중시한다' 이다. 가족투사 문항의 예로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 대해 근심하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이며 정서적 단절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보다는 안 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이고 가족퇴행 문항의 예로는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다고 해석하기 위해서 인지대 정서,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에서 부정적인 문항들을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자아분화 척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형태로 대답하게 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인지대 정서는 .70, 자아통합은 .70, 가족투사는 .84, 정서적 단절은 .79, 가족퇴행은 .87로 나타났고 자아분화 전체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인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를 이은경(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설정 11문항, 직업정보 6문항, 문제해결 3문항, 계획수립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설정 문항의 예로는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고 직업정보 문항의 예로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이다. 문제해결 문항의 예로는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이고 계획수립 문항의 예로는 '내가 좋아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응답자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 대답하게 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목표설정은 .90, 직업정보는 .83, 문제해결은 .73로 나타났고 계획수립은 .74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 Gottfredson과 Power(1980)가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조은주(2001)가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안정성 6문항, 목표지향성 6문항, 독특성 6문항,

자기주장 6문항, 자기존재의식 6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정성 문항의 예로는 '나는 진로 계획에 대한 생각이 자주 바뀐다' 이고 목표지향성 문항의 예로는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이다. 독특성 문항의 예로는 '내 친구들과는 다른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인지 안다' 이며 자기주장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고 자기존재의식 문항의 예로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다' 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료하고 안정된 상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응답자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 대답하게 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안정성은 .64, 목표지향성은 .83, 독특성은 .83, 자기주장은 .72, 자기존재의식은 .87로 나타났고 전체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부모의 진로기대는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신동우, 2012; 신동우, 유계숙, 2012; 조아미, 2000; Papero, 1990), 부모의 진로기대는 자기결정 자

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김현정, 이상민, 최보영, 2011; 심호규, 2007; 이문죽, 2012; 염서영, 진정아, 2017; 이윤경, 2010; 이창숙, 2011; 차병주, 2011; Leung et al., 2011; Stringera & Kerpelmana, 2010). 자아분화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김정택, 심혜숙, 1992; 남상인, 2003; 박수현, 2009; 전병화, 2008; 차병주, 2011; 최소영, 2013; Kerr & Bowen, 1988; Rainey & Borders, 1997; Rogers et al., 2008; Skowron & Friedlander, 199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김선중, 2005; 김화영, 2003; 김혜경, 2012; 문미란, 2003; 배무련, 2015; 이경선, 2009; 이연미, 2001;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2014; 최영희, 2004; Guan et al., 2016; Harren, 1979).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강지혜, 2017; 김소영, 2009; 김은재, 2016; 박영자, 2015; 신동우, 유계숙, 2012; 이은실, 2014; 이경선, 2009; 정혜연, 2009; Bowen, 1982; Skowron & Friedlander, 1998).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부모의 진로기대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김경아, 2005; 남희경, 2012; 서유란, 이상희, 2012; 최동민, 2015; 한방미, 2015; 허형원,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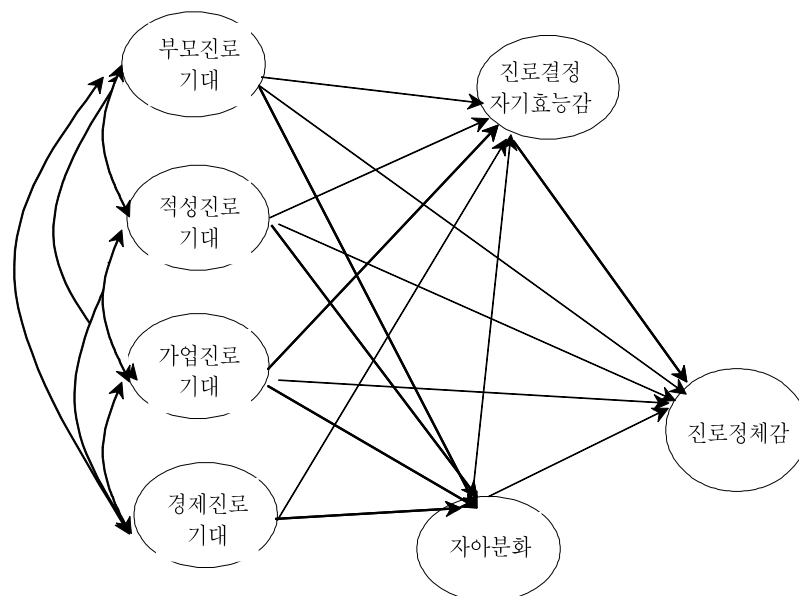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모형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에서 신뢰도는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기술 통계, 구조방정식 분석은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의 검증을 위해 변인들의 정규 분포 가정, 상관분석, 모형의 적합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500번을 실시하고 bias-corrected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연구 3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살펴보았고 이후 남녀 간의 경로계수들을 하나씩 제약하면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모형의 검증

측정변수의 상관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1과 같다.

부모의 진로기대간 상관은 $-.43 \sim .38(p < .05)$ 로 나타났으며 적성진로기대와 가업진로기대 $-.05(p > .05)$, 적성진로기대와 경제진로기대 $-.05(p > .05)$ 의 상관을 제외하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기대와 자아분화간의 상관은 $-.50 \sim .42(p < .05)$ 까지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기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은 $-.28 \sim .47(p < .05)$ 까지 나타났으며 가업진로기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4(p > .05)$, 경제

표 1. 측정변수들의 통계치

($N = 608$)

	일반진로 기대	적성진로 기대	가업진로 기대	경제진로 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일반진로기대	1.00						
적성진로기대	-.43**	1.00					
가업진로기대	.35**	-.05	1.00				
경제진로기대	.38**	-.05	.28**	1.00			
자아분화	-.50**	.42**	-.23**	-.13**	1.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8**	.47**	-.04	-.03	.36**	1.00	
진로정체감	-.33**	.37**	-.12**	-.18**	.31**	.77**	1.00
평균	2.27	3.53	2.01	3.15	3.61	3.47	3.45
표준편차	.83	.60	.68	.78	.44	.59	.57
왜도	.58	-.37	.41	-.36	-.10	.21	.58
첨도	.00	1.01	-.25	.18	-.54	.99	-.03

* $p < .05$. ** $p < .01$.

진로기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3(p > .05)$ 의 상관을 제외하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기대와 진로정체감의 상관은 $-.33 \sim .37(p < .05)$ 까지 나타났다.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6(p < .05)$, 자기분화와 진로정체감은 $.31(p < .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은 $.77(p < .05)$ 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37 \sim .58$, 첨도는 $-.54 \sim 1.01$ 로 나타나 이러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L(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념 신뢰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적합도 검증은 상대적합도 지수인 χ^2 , TLI, CFI와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를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에서 χ^2 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표집이 크면 클수록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모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상대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RMSEA도 .05~.08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개념 신뢰도는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7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 = 737.380(p < .01)$ 으로 나타

났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TLI = .899, CFI = .919, RMSEA = .074 (90% CI = .07~.08)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변인들의 개념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일반진로기대 .89, 적성진로기대 .84, 가업진로기대 .86, 경제진로기대 .83, 자아분화 .8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93, 진로정체감 .96으로 모든 변인의 개념 신뢰도는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측정변수가 각 요인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모형에서 적합도 검증은 상대적합도 지수인 χ^2 , TLI, CFI와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 = 720.518(p < .01)$ 로 나타났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TLI = .901, CFI = .922, RMSEA = .073(90% CI = .067~.079)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진로기대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36(p < .05)$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성진로기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48(p < .05)$,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39(p < .05)$ 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진로기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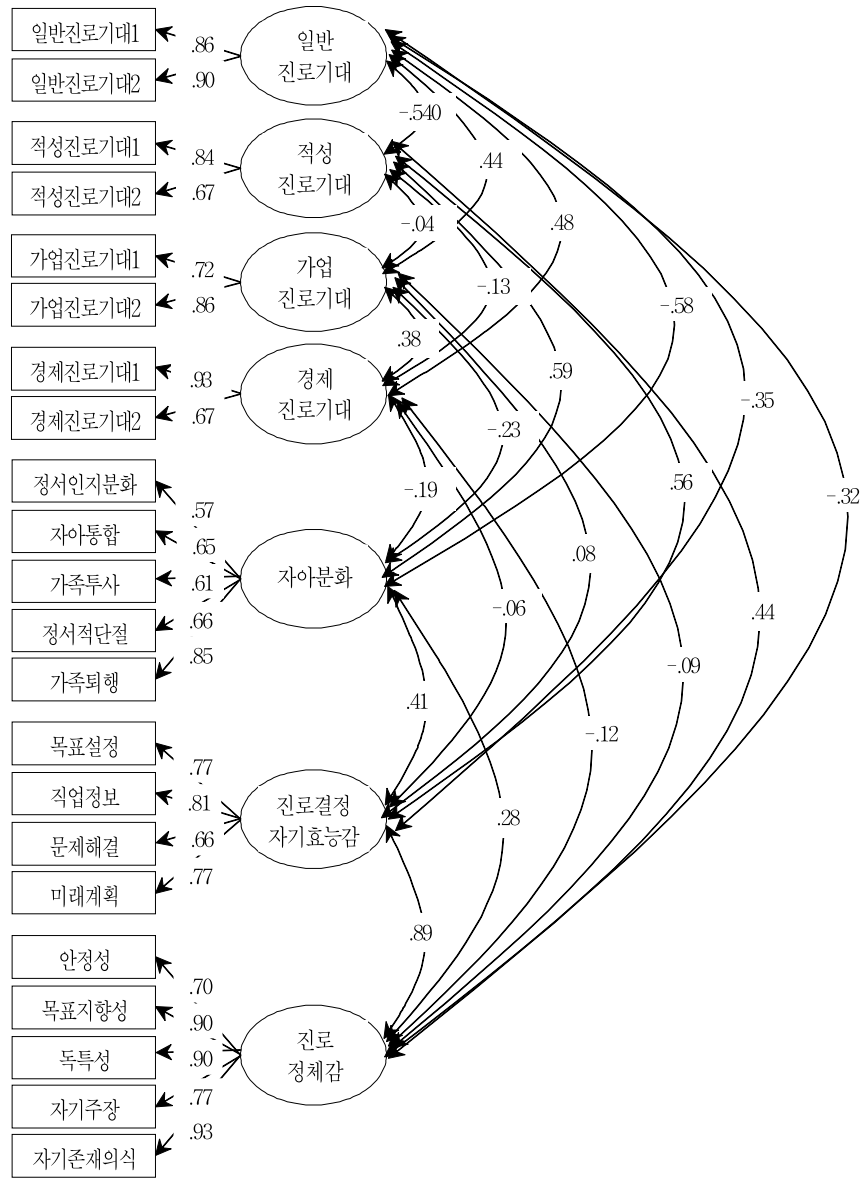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

표 2. 모형의 적합도 검증

(N = 608)

적합도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720.518	183	.000	.901	.922	.073 (90% CI = .067 ~ .079)

표 3. 연구모형에서 경로계수의 추정치

(N = 608)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표준화 계수
일반진로기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3	.07	-.43	-.03
일반진로기대 → 진로정체감	-.02	.01	1.08	-.05
일반진로기대 → 자아분화	-.13**	.03	-4.48	-.36**
적성진로기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9**	.10	6.16	.48**
적성진로기대 → 진로정체감	.02	.02	1.12	.05
적성진로기대 → 자아분화	.19**	.04	5.13	.39**
가업진로기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6	.07	-.83	-.05
가업진로기대 → 진로정체감	.00	.02	.10	.00
가업진로기대 → 자아분화	-.04	.03	-1.41	-.08
경제진로기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4	.03	1.35	.06
경제진로기대 → 진로정체감	-.02*	.01	-2.31	-.07*
경제진로기대 → 자아분화	.02	.01	1.31	.06
자아분화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7	.17	1.60	.11
자아분화 → 진로정체감	.09*	.04	2.58	.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정체감	.33**	.04	9.30	.94**

* $p < .05$. ** $p < .01$.

영향도 $-.07(p < .0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분화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11(p < .05)$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94(p < .05)$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진로기대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44%로 나타났고($R^2 = .44$), 진로기대와 자아분화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32%로 나타났다($R^2 = .32$). 진로기대와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80%로 나타났다($R^2 = .80$). 자아분화에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리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진로기대, 가업진로기대, 경제진로기대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적성진로기대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분화는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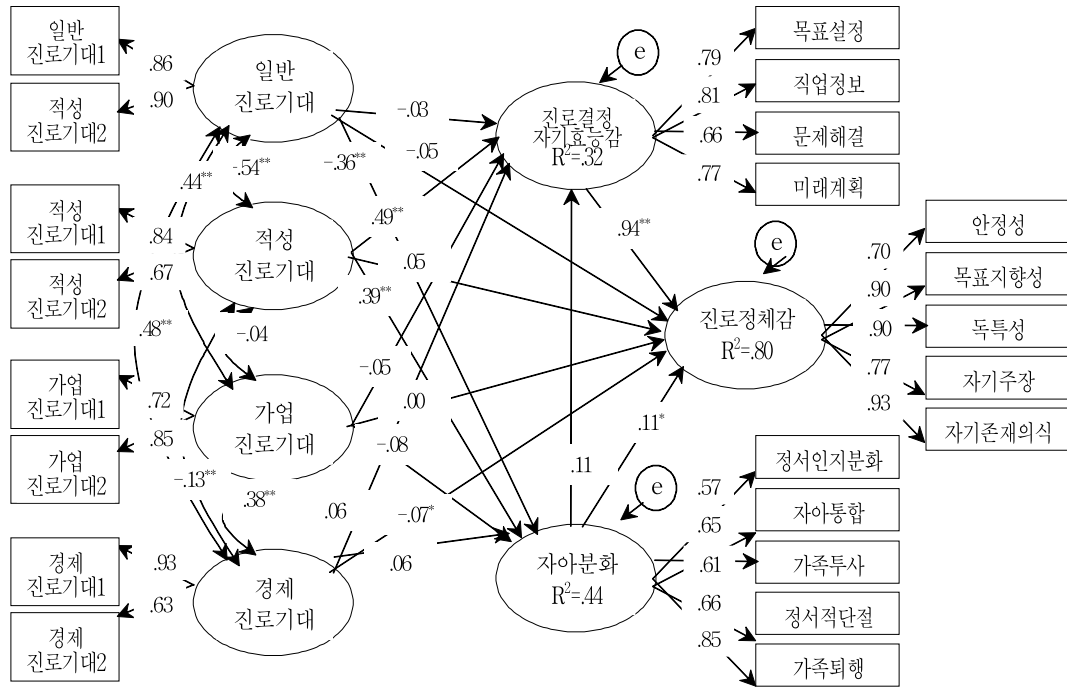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관한 최종모형
* $p < .05$. ** $p < .01$.

표 4.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분해 ($N = 608$)

예언변인		진로정체감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외생변인	일반진로기대	-.04*	-.02	-.02*
	적성진로기대	.24*	.02	.21*
	가업진로기대	-.01	.00	-.01
	경제진로기대	-.03*	-.02*	-.01
내생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3*	.33*	-
	자아분화	.18**	.10*	.09

주. 비표준화계수

* $p < .05$. ** $p < .01$.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매개효과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AMOS 프로그램은 해당되는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 500번을 실시하고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BC)의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인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BC)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할 경우 $\alpha = .05$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의 값이 5%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의미한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적성진로기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B = .19, p < .05$) 일반진로기대($B = -.02, p < .05$)와 적성진로기대($B = .02, p < .05$)가 자아분화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모형의 차이검증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다집단 분석을 통한 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형태동일성 제약모형(모형1)은 기저모형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가 같다고 보는 모형으로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chi^2 = 927.259$, CFI = .918, RMSEA = .053). 측정동일성 제약모형(모형2)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로 향하는 요인부하량이 같다고 제한한 모형이다. 각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들로 향하는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chi^2 = 946.367$, CFI = .918, RMSEA = .052). 측정동일성에서 형태동일성과의 적합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Delta\chi^2$

표 5. 부모의 진로기대와 자아분화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N = 608$)

매개변인	<i>B</i>	<i>SE</i>	<i>t</i>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
적성진로기대→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정체감	.19**	.05	4.2**	.12~.30
일반진로기대→자아분화→진로정체감	-.02*	.05	-2.4*	-.04~-0.00
적성진로기대→자아분화→진로정체감	.02*	.01	2.3*	.04~.01

주. 매개효과 검증에서 유의한 결과만을 제시함

* $p < .05$. ** $p < .01$.

표 6. 동일성 검증 결과

(N = 608)

적합도지수	χ^2	df	p	CFI	RMSEA	$\Delta\chi^2$
형태동일성(모형1)	927.259	366	.000	.918	.053	모형2-모형1
측정동일성(모형2)	946.367	381	.000	.918	.052	$\Delta\chi^2 = 19.108(p = .209)$
절편동일성(모형3)	1024.035	403	.000	.910	.053	모형3-모형2 $\Delta\chi^2 = 77.668(p = .000)$

= 19.108($p > .05$)로 모형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1$ 로 적합도의 기준에서도 만족할만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절편동일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에 측정변인들의 절편이 같다고 제약한 모형으로 만족할 만한 적합도($\chi^2 = 1024.035$, $CFI = .910$, $RMSEA = .053$)를 보였

표 7. 남녀집단에서 경로계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N = 608)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χ^2 변화량 (df = 1)	CFI 변화량
	남학생	여학생		
기저모형(측정 동일성)			$\chi^2 = 946.367$	$CFI = .918$
일반진로기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3	-.08	$\Delta\chi^2 = .085$	$\Delta CFI = .000$
일반진로기대 → 진로정체감	-.13	.01	$\Delta\chi^2 = 2.520$	$\Delta CFI = -.001$
일반진로기대 → 자아분화	-.47**	-.29**	$\Delta\chi^2 = 1.612$	$\Delta CFI = .001$
적성진로기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6**	.53**	$\Delta\chi^2 = .165$	$\Delta CFI = .000$
적성진로기대 → 진로정체감	.04	.08	$\Delta\chi^2 = .063$	$\Delta CFI = .000$
적성진로기대 → 자아분화	.38**	.42**	$\Delta\chi^2 = .017$	$\Delta CFI = .000$
가업진로기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1	-.13	$\Delta\chi^2 = 1.264$	$\Delta CFI = .000$
가업진로기대 → 진로정체감	.05	-.02	$\Delta\chi^2 = .770$	$\Delta CFI = .000$
가업진로기대 → 자아분화	.05	-.18*	$\Delta\chi^2 = 3.610$	$\Delta CFI = -.001$
경제진로기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4	-.02	$\Delta\chi^2 = 3.217$	$\Delta CFI = .000$
경제진로기대 → 진로정체감	-.05	-.08	$\Delta\chi^2 = .117$	$\Delta CFI = .001$
경제진로기대 → 자아분화	.09	.04	$\Delta\chi^2 = .337$	$\Delta CFI = .000$
자아분화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8	.02	$\Delta\chi^2 = 2.438$	$\Delta CFI = .000$
자아분화 → 진로정체감	.17*	.06	$\Delta\chi^2 = 1.480$	$\Delta CFI = .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정체감	.89**	.99**	$\Delta\chi^2 = 3.142$	$\Delta CFI = -.001$

* $p < .05$. ** $p < .01$.

다. 측정동일성과 모형을 비교했을 때 절편동일성 모형은 $\Delta\chi^2 = 77.668(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절편동일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남녀 간에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기저모형으로 하여 각각의 경로 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경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와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일반진로기대, 적성진로기대, 가업진로기대, 경제진로기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진로기대, 가업진로기대, 경제진로기대는 적성진로기대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연구모형의 상호상관에서도 일반진로기대, 가업진로기대, 경제

진로기대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지만 적성진로기대와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Papero, 1990; Ryan & Deci, 2017) 부모의 적성진로기대는 자녀에게는 진로지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라, 이호준, 2015). 하지만 일반진로기대, 가업진로기대, 경제진로기대는 부모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맞는 진로를 갖기 바라기 때문에 중학생들에게 부담, 통제, 스트레스 등으로 작용하여 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부모가 자녀의 진로희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의 올바른 발달과 진로탐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정 등, 2011; 이주희, 문은미, 2011; Guan et al., 2016).

본 연구결과 부모의 일반진로기대는 자아분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적성진로기대는 자아분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분화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구(김현영, 2005), 부모의 진로기대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진로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정예지, 유계숙, 2015),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자아분화가 높아진다는 연구(최인재, 2004) 등과 관련하여 부모의 진로기대에 대해서 자녀가 일방적으로 맞추어야 하는 일반진로기대는 청소년의 독립적인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하지만 적성진로기대는 자녀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진로선택과정을 부모가 지지해 주는 것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이 청소년의 자아분화를 높여준다는 연구(최인재, 2004), 합리적 의사결정이 자아분화를 높인다는 연구(남상인, 2003), 부모와의 긍정적인 친밀감과 애착이 자아분화를 높인다는 연구(최인재, 2004)와 관련된다. 적성진로기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높은 지지가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연구(이광자, 2004), 부모의 적성진로기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강지혜, 2017) 등과 관련된다. 본 연구결과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 지지를 하면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진로기대 중에서 경제진로기대는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지각하기에 진로성취의 목표가 부모가 바라는 부의 축적과 경제적인 안정감인 경우 자신의 지향점과는 다르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 나가고 자율적인 진로결정을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김은진, 천성문, 2001). 또한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부모 통제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불신을 유발한다는 결과와도 관련된다(Kerr & Stattin, 2000). 자아분화는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을 분리, 독립하여 객관적인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합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Bowen, 1982; Johnson, Schamuhn, Nelson, & Buboltz, 2014; Kear, 1978; Rainey & Borders, 1997; Rogers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적성진로기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지각하기에 부모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적성진로기대에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김현정 등, 2011; Guan et al., 2016).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성진로기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성진로기대는 자아분화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적성진로기대가 높을수록 중학생들은 독립적인 자아분화를 충분히 발달시켜 자아정체감을 높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보면 청소년들은 점차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발달하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진로관련 지지는 자아분화를 높인다고 한다(Papero, 1990; Ryan & Deci, 2017). 자아분화가 높은 청소년들은 객관적이고 융통적이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의 적성 등을 고려한 부모의 진로기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우며 진로정체감을 촉진시켰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일반진로기대는 자아분화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기

대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김경아, 2005; 심호규, 2007; 안기준, 2001; 정혜연, 2009), 자아분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부모의 일반진로기대가 자아분화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Chartrand, Rose, Elliot, Marmarosh, & Caldwell, 1993). 본 연구결과 부모가 원하는 진로에 자녀가 맞추도록 하는 일반진로기대는 자녀에게 압박으로 느껴져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서 자아분화가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부모의 일반진로기대는 자아분화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분화를 높이면서 부모의 일반진로기대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부모의 진로기대,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측정동일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측정동일성을 기저모형으로 하여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를 하나씩 제약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경로계수들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기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성진로기대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의 진로기대가 자녀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지혜, 2017; Alliman-Brissett et al., 2004). 일반진로기대, 가업진로기대, 경제진로기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원하는 방식의 진로기대는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차병주, 2011; Leung et al., 2011). 부모의 일반진로기대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아분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적성진로기대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아분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진로기대가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지지하는 경우 자녀의 자아분화가 높아지지만 부모의 기대에 자녀를 억지로 맞추도록 하는 진로기대는 자아분화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김지원, 이정운, 2014).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독립적이고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진로기대는 자아분화를 높여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가업진로기대와 경제진로기대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개념인 돈을 많이 벌고,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진로기대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분화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남학생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이 독립적이

고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는 자아분화능력이 높아질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높으며 이는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김양분 등, 2010;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이은실, 2014; 이현주, 김용남, 2011). 경제진로기대와 가업진로기대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성진로기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분화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와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가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반진로기대는 자아분화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 부모 중심적인 진로기대로 인해서 자녀와 갈등적인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김태연, 2011; Young, Ball, Valach, Turkel, & Wong, 2003).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형성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이경선, 2009).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선택,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속적인 계획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생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희선, 윤정이, 2016;

Holland, 1997).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그동안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부모의 진로기대와 자아분화를 동시에 다루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을 연구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신의 자아분화 발달과 부모의 기대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를 일반진로기대, 적성진로기대, 가업진로기대, 경제진로기대로 나누어 진로기대에 따라서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부모가 판단할 때에 부모는 자녀를 위한 진로기대를 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진로기대를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부모의 진로기대를 청소년들이 억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서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누릴 자율성에 손상을 주고 심리적으로 독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심리적 압박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진로상담 및 지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진로기대와 진로정

체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적성진로기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분화가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성진로기대와 더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진로기대는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아분화가 이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발달하면서 자아분화가 자신의 진로탐색과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강요적이고 스트레스적인 진로기대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낮추고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 대한 연구들은 있어 왔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은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기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분화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구조적인 관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적이고 충실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 변인인 자아분화와 가정적 변인인 부모의 진로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관련 변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는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변인과 개인 간 변인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경향과 더불어 학년 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진로정체감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 관련 변인들 간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개인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기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찰지능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 (2005). 성 및 출생순위가 부모의 자녀 진로기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김관석 (2001). 고등학생 진로정체감수준과 진로 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라, 이호준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 287-306.
- 김사라형선 (2013).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아동학회지, 34(5), 43-59.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경 (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아동복지, 51, 23-46.
- 김소영 (2009). 남자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신종호, 홍세희 (2010).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VI) (연구보고 RR 2010-2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은재 (2016). 고등학생의 자기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1), 147-162.
- 김정택, 심혜숙 (1992). Murray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인간이해, 13, 33-4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김지원, 이정윤 (2014).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의 자기분화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5(3), 97-120.
- 김태연 (2011).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성격 요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영 (2005).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이상민, 최보영 (2011). 고등학생의 진로성격유형에 따른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Holland 진로탐색검사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0, 31-51.
- 김혜경 (2012).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영 (2003). 대학생 진로결정의 흥미타협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 (200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543-558.
- 남희경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기대가 성역할 정체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성차모형의 검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진숙 (1999). 진로탐색 단기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가연 (2004).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여중생의 진로성숙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란 (2003).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다중역할갈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현 (2009).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자 (2015). 중학생의 성격특성과 직업흥미 유형이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관련 부모지지의 조절 효과.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남녀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차이. 교육종합연구, 14(3), 1-27.
- 박형서, 공인규 (2010). Holland진로탐색프로그램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3(3), 123-140.
- 배무련 (2015). 기독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신앙성숙, 진로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유란,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 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25-542.
- 신동우 (2012).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 진로기대가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분화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우, 유계숙 (2012).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학업,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3-22.
- 신소홍 (2014). 간호대학생들의 부모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분화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1), 6756-6766.
- 신순란 (199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 곽미용 (2003).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기대 성격유형과 실제 성격유형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0(1), 25-51.
- 심호규 (2007). 부모의 진로기대와 애착수준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기준 (2001). 부모의 자녀 교육 기대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분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서영, 진정아 (2017). 부모의 기대수준이 초
기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
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1(2), 67-85.
- 유정이 (2006). 진로정체감 검사의 중·고·
대학생 규준에 관한 연구. 실과교육연구,
12(1), 85-98.
- 이경선 (200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 (2004).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
과의 관계 연구: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
계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문죽 (2012).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삶의 목
적수준과 부모의 진로기대가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인 (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
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남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미 (2001).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경 (2010). 부모의 진로기대가 자녀의 진로
스트레스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중심. 배재대학교 행정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 이은실 (2014).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진로태도성
숙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
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주희, 문은미 (2011).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
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11-226.
- 이창숙 (2011). 고등학교의 부모진로기대 및 부
모진로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독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김용남 (2011). 내재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의 종단적 변화 분석: 중·고등학교
급 차이 및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
발원 제5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자
료집, 415-435.
- 이희선, 선우현정 (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
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자아정
체감, 부모의 방임. 청소년학연구, 22(6),
57-73.
- 임경용 (2016). 생애목표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자
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연구: 특
성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선, 윤정이 (2016).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직업체험활동, 생애목표가 진로정체성
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271-292.
- 전병화 (2008). 고등학생의 자기분화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
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자 (1978).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

- 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예지 (2015).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진로결정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공공부문과 대기업 일자리 희망 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예지, 유계숙 (2015).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진로결정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공공부문과 대기업 일자리 희망 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39-66.
-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201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정체감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 27-36.
- 정혜연 (2009). 부모진로기대에서 적성의 고려 여부가 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의 지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세연, 김기찬 (2014).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9), 325-349.
- 조아라 (2013). 한국판 부모진로관련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직업기대와 진로결정 유형. 인문과학연구논총, 23, 131-144.
-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 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병주 (2011). 부모의 진로기대와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민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관련 행동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 진로 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소영 (2013). 여고생의 진로신념과 자아분화, 부모의 진로신념이 진로결정문제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우 (2010).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이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 (2004).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별 귀인 성향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방미 (2015).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수연 (2006). 부모기대 및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형원 (2011). 재한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진로 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iman-Brissett, A. E., Turner, S. L., & Skovholt, T. M. (2004). Parent support and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areer self-efficacy.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7*(3), 124-132.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L.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pp. 42-90).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Chartrand, J. M., Rose, M. L., Elliot, T. R., Marmarosh, C., & Caldwell, S. (1993). Peeling back the onion: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66-82.
- Greenhaus, J. H., & Sklarew, N. D.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1), 1-12.
- Guan, P., Capezio, A., Restubog, S. L., Read, S., Lajom, J. A., & Li, M. (2016). The role of traditionality i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4*, 114-123.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 Johnson, P., Schamuhn, T. D., Nelson, D. B., & Buboltz, W. C., Jr. (2014). Differentiat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Effects on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1), 70-80.
- Kear, J. (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Dissertations Abstracts International, 47*, 2505.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Norton.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eung, S. A., Hou, Z. J., Gati, I., & Li, X. (2011). Effects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cultural-values orient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1), 11-20.
- Meijers, F. (1998). The development of a career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20(3), 191-207.
- Papero, D. V. (1990). *Bowen family system theory*. Boston: Allyn & Bacon.
- Pinquart, M., Juang, L. P., & Silbereisen, R. K. (2004). The role of self-efficacy, academic abilities, and parental education in the change in career decision of adolescents facing German unific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1(2), 125-142.
- Rainey, L. M., & Borders, L. D. (1997). Influential factors i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2), 160-172.
- Rogers, M. E., Creed, P. A., & Glendon, A. I.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32-142.
-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New York: Guilford Press.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35-246.
- Stringera, K. J., & Kerpelmana, J. L. (2010). Career identity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parental support, and work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0(3), 181-200.
- Super, D. E., Starishevshky, R., Matlin, N., & Jordan, J. P. (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Young, R. A., Ball, J., Valach, L., Turkel, H., & Wong, Y. S. (2003). The family career development project in Chinese Canadian famil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2), 287-304.

1 차원고접수 : 2018. 04. 09.
수정원고접수 : 2018. 05. 16.
최종게재결정 : 2018. 05. 2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s' Career Expectation, Self-Differenti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Lim, Hyun Hee

Cho, Han Ik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s' career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self-differenti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a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in the study were 608 students in their last year of middle school, 327 male and 281 fem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n general, parents' career expectations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differentiation, but aptitude-related career expectancy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differentiation. Aptitude-related career expectation also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hile self-differenti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identity. After probing through the data for any mediating effects, the study found that aptitude-related career expect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areer identity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also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areer identity through self-differentiation. Generalized career expect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identity through self-differenti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found in terms of the path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Keywords: parents' career expectation, self-differenti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dentity